

K-Entertainment Korean to English Translations

Table of Contents

| | |
|---|---------|
| K-Movie | pgs 2-3 |
| Source: https://www.tvreport.co.kr/2095155 | |
| K-Drama | pgs 4-5 |
| Source: http://osen.mt.co.kr/article/G1111598266 | |
| K-Pop | pgs 6-8 |
| Source: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701152228278010443_1 | |

최민식 X 김동휘가 꼽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명대사 '공감+힐링'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가 3일 연속 전체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또한 배우들이 직접 꼽은 영화 속 명장면과 명대사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신분을 감추고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는 탈북한 천재 수학자가 수학을 포기한 학생을 만나며 벌어지는 감동 드라마. 탈북한 천재 수학자 ‘이학성’으로 분해 대체불가능한 존재감을 선보인 배우 최민식은 “틀린 질문에서 옳은 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지”라는 대사를 이번 작품의 백미로 꼽았다.

이는 극중 ‘이학성’이 ‘한지우’(김동휘)에게 처음으로 수학을 알려주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대사로, ‘이학성’은 첫 수업 시간에 일부러 잘못된 문제를 출제해 ‘한지우’를 테스트한다. 문제의 오류를 찾아내지 못한 채 정해진 공식으로만 답을 내놓은 ‘한지우’에게 ‘이학성’은 “틀린 질문에서 옳은 답이 나올 수 없다”라고 설명하며 수학에 다가가는 시작 단계부터 바로잡기 시작한다. 이에 최민식은 “이 근사한 대사에 꽃혔다. 수학뿐 아니라 세상사도 마찬가지다. 올바른 삶,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질문이 시나리오 속에 담겨 있다”라는 말을 덧붙여, 깊은 공감을 자아낼 영화 속 메시지들을 더욱 기대케 한다.

이어 김동휘는 “답을 맞히는 것보다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대사에 대한 애정을 밝힌 바 있다. 수학에서 발견한 특별한 인생의 이야기를 담아낸 이번 작품은 정답보다 중요한 올바른 과정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수학을 가르쳐주기로 약속했지만 “시험이나 성적 따위엔 관심이 없다”고 선언한 ‘이학성’은 좋은 결과를 얻는것에만 급급한 ‘한지우’에게 수학을 바라보는

‘Healing and Relatable: These are the Best Lines From “In Our Prime” According to Choi Minsik and Kim Donghwi

“In Our Prime” has been number one at the box office for three straight days. In addition, its best scenes and lines according to the actors have also drawn attention.

“In Our Prime” stars the irreplaceable Choi Minsik as Lee Hakseong, a North Korean defector who is a genius mathematician, but hides his true identity by working as a security guard at a high school. The touching drama then begins when he meets Han Jiu (Kim Donghwi), a student who has given up on math. Choi picked the line “The right answer can’t come from a wrong question” as one of the movie’s best lines.

This line comes from Lee’s first math lesson with Han where he intentionally gives Han a question that includes an error to test him. When Han fails to catch the error and just answers in a formulaic manner, Lee tells him, “The right answer can’t come from a wrong question.” Right from the start, Lee is correcting Han’s approach to math. Choi explained how the line encompasses the movie’s deeply relatable message: “I’m hooked on this wonderful line. It applies not just to math, but the world, too. The question about living an upright life, a life of value, is in the script.”

In a story where math reveals a special kind of life, Kim Donghwi loved the line, “The process of finding out the answer is more important than getting it right.” Although Lee promises Han that he would teach him math, Lee tells him, “I have no interest in things like tests and grades.” To someone like Han, who is only about getting good results immediately, Lee is presenting a new way to see math.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앞서 최민식이 꼽은 명대사와 이어지는 “답을 맞히는 것보다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이학성’의 대사는 수학을 넘어 인생과도 맞닿은 울림을 선사한다. 김동휘는 “수학에서는 풀이 과정을 길게 쓰고, 그 과정을 돌아보며 답이나 오류를 발견한다. 이번 작품을 통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하며 명장면 선정에 대한 이유를 전했다.

조윤서가 직접 꼽은 영화 속 명장면은 ‘이학성’이 ‘한지우’에게 수학적 용기를 설명하는 순간이다. 노력만큼 따라주지 않는 성적에 고민하는 ‘한지우’에게 ‘이학성’은 수학을 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며 그가 정의하는 용기를 전한다. “문제가 안 풀릴 때는, 화를 내거나 포기하는 대신에 ‘문제가 참 어렵구나. 내일 아침에 다시 풀어봐야겠구나’ 하는 여유로운 마음. 그것이 수학적 용기다”라는 ‘이학성’의 울림 있는 대사는 ‘한지우’를 비롯해 인생의 난제를 마주한 모두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한다. 조윤서는 “‘무작정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것도 용기구나’라는 생각에 큰 위로를 받았다”는 소감을 밝혀, 따스한 힐링을 전할 영화 속 명장면들의 향연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한편,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개봉 이후 3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연일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뿐 아니라, 배우들의 열연과 흥미로운 수학적 연출을 담아낸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개봉 첫 주말을 맞아 더욱 뜨거운 흥행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배우들이 전한 명장면과 명대사를 공개하며 이목을 집중시키는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Kim’s favorite line connects to Choi’s favorite line in that they both can apply beyond math to life itself. Kim stated, “In the process of writing out a long math problem, when you look back on it, you can discover the answer or an error. While doing this project, I realized how you can learn a lot from the process.”

For Jo Yunseo, the movie’s best scene is the one where Lee explains what “mathematical courage” is to Han. When Han struggles with how his grades don’t reflect his effort, Lee explains the most important thing needed to be good at math while also defining what courage means to him. He says, “Instead of getting mad or giving up when you can’t solve a problem, relax and say to yourself, ‘This problem is quite hard. I’ll try to solve it again tomorrow morning.’ That is mathematical courage.” This uplifting line sends warm encouragement to not only Han, but anyone who is facing a difficult situation in life. In regards to the line, Jo revealed, “I thought, ‘You don’t just have to force yourself to face something and that this too is courage.’ It was very comforting.” The fact that there are so many warm and healing scenes like this heightens the anticipation for the movie.

Moreover, “In Our Prime” has secured the top spot at the box office for three straight days since its release. The movie not only offers comfort and relatability, but the audience can also enjoy the actors’ performances and the math-focused production. It is predicted that it will achieve more success going into its first weekend.

“In Our Prime” is currently playing in theaters across Korea to rave reviews.

'언더커버' 종영 D-Day, 지진희→김현주 4자대면..제작진 "역습 휘몰아쳐"

'언더커버'에서 지진희, 김현주가 최후의 결전을 펼친다.

JTBC 금토드라마 '언더커버'(극본 송자훈 백철현, 연출 송현욱) 측은 16 회(마지막 회) 방송을 앞둔 12 일 한정현(지진희 분), 최연수(김현주 분), 임형락(허준호 분), 도영걸(정만식 분) 사이로 전운이 감도는 사자대면 현장을 공개했다. 이들의 운명을 가를 파이널 라운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방송에서 한정현과 최연수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한정현은 국정원 기조실장실에 잠입해 태블릿 PC 를 손에 넣었고, 최연수는 불법과 혼탁으로 얼룩진 선거 비리를 적발했다. 하지만 자신의 위기를 감지한 임형락은 무차별한 반격을 가했다. 오피재(권해효 분)가 총을 맞고 쓰러졌고, 최연수 앞에 고스트 요원 천우진(김동호 분)이 나타나며 긴장감을 배가시켰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에는 최연수가 임형락과 도영걸의 감시 속에 잡혀있다. 헝클어진 머리칼과 얼굴의 상처, 가슴께를 저격하는 빨간 레이저 불빛이 그의 위기를 짐작케 한다.

***Undercover's* Final Episode D-Day, A Four-way Face-off from Ji Jinhee to Kim Hyunjoo "Counterattacks are in full force," says production team.**

Ji Jinhee and Kim Hyunjoo's final battle will unfold in *Undercover*.

Ahead of the June 12th airing of the final and 16th episode of JTBC's Fri-Sat drama *Undercover* (written by Song Jahoon and Baek Cheolhyun, and directed by Song Hyunwook), a scene was revealed in which war clouds are hovering over a four-way face-off between Han Junghyun (Ji Jinhee), Choi Yeonsoo (Kim Hyunjoo), Im Hyungrak (Heo Joonho), and Do Younggul (Jung Manshik).

Attention is focused on the final round that will determine their fates. In the previous episode, Han Junghyun and Choi Yeonsoo made their final bids for victory. Han Junghyun infiltrated 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got possession of the tablet PC while Choi Yeonsoo uncovered irregularities in the election that had been tainted by illegality and corruption. However, sensing the danger he was in, Im Hyungrak inflicted a haphazard counterattack. Oh Piljae (Kwon Haehyo) got shot and collapsed, and the appearance of ghost agent Chun Woojin (Kim Dongho) in front of Choi Yeonsoo has doubled the suspense.

In the midst of this situation, the revealed photo shows Choi Yeonsoo caught and under the surveillance of Im Hyungrak and Do Younggul. One can sense the danger she is in from her tangled hair, the scars on her face, and the red laser beam dot aimed at her chest.

이어진 사진에는 최연수를 구할 단 한 사람, 한정현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반전된다. 의문의 가방에서 꺼낸 것은 바로 임형락의 극악무도한 행적이 담긴 태블릿 PC. 한정현과 임형락이 각자의 볼모로 삼은 최연수, 태블릿 PC 를 두고 벌이는 숨 막히는 신경전이 결말에 대한 궁금증을 높인다.

오늘(12 일) 방송되는 '언더커버' 최종회에서는 임형락을 잡아넣을 유일한 증거인 태블릿 PC 를 차지하려는 싸움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파국을 맞았던 한정현, 최연수와 가족들의 변화도 그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언더커버' 제작진은 "마지막까지 역습과 반전이 휘몰아친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한정현과 최연수의 운명, 그리고 악의 배후인 임형락의 최후를 지켜봐 달라"라고 했다.

'언더커버' 마지막회는 오늘 밤 11 시에 방송된다.

In a related photo, the appearance of the one person who will save Choi Yeonsoo, Han Junghyun, turns the tables. What he takes out from the mysterious bag is the tablet PC that contains Im Hyungrak's heinous activities. As Han Junghyun and Im Hyungrak have both made Choi Yeonsoo their pawn, curiosity is piqued as to what will result from the nail-biting psychological warfare over the tablet PC.

In the final episode of *Undercover* that is airing today (the 12th), the fight to take possession of the tablet PC, which is the only evidence to catch Im Hyungrak, will heat up. The transformation of the catastrophe that has befallen Han Junghyun, Choi Yeonsoo, and their family is also expected to be shown.

In response to this, the production team said, "Until the end, counterattacks and reversals will be in full force. Please watch for Han Junghyun and Choi Yeonsoo's fate as they give up everything to protect what is precious, and evil mastermind Im Hyungrak's end."

The final episode of *Undercover* airs tonight at 11 p.m.

[팝업뮤직]신화 '터치' 음악방송 관전포인트 #인트로 #기승전디

신화 '터치' 퍼포먼스,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까. 음악방송은 어떻게 담았을까.

신화는 지난 2일 정규 13집 앨범을 발표했다. 지난 12일부터 음악방송 컴백 무대를 차례로 선보였다. '터치' 퍼포먼스는 화려한 고난도 안무 대신 소리 하나 하나를 절제된 동작으로 카리스마를 담아 표현한다. 1절에는 여섯 멤버만으로 군무를 이루고, 2절에는 멤버들이 각자 파트에 홀로 나서 댄서들과 안무를 수행하며 또 다른 그림을 만든다. 후렴구에 가사가 없고, 멜로디로만 이뤄지는 독특한 구성이기 때문에 퍼포먼스의 표현력이 더욱 중요한 곡이다. 멤버들의 시선 처리를 비롯해 이민우의 독무와 엔딩까지 의미를 담아 퍼포먼스를 만들었다. 음악방송 카메라도 저마다의 색깔로 퍼포먼스를 해석했다. '터치' 퍼포먼스를 전두지휘한 최영준 안무가(라이브웍스 컴퍼니 소속)의 말을 빌려 음악방송 컴백무대를 분석했다.

관전포인트 1. 신혜성의 인트로

최영준 안무가 "인트로 때 신혜성 파트를 보면 멤버들이 다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 후 시선처리를 또 다 다른 방향으로 해요. 노래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신혜성의 분위기와 보컬 색깔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부분이에요."

[Popup Music] Watching Points on Music Shows for Shinhwa's "Touch" #Intro #Unexpected-Dy

Shinhwa's "Touch" performances, what's the best way to enjoy them? And how did music shows shoot them?

On January 2nd, Shinhwa released their 13th full album. Starting from the 12th, they showcased their comeback stages on the music shows one by one. Instead of using choreography to portray showy distress, each individual sound is charismatically portrayed through restrained poses. In the first verse, the six members perform a group dance by themselves, while the second verse paints a different picture with the members performing their parts individually with backup dancers. Because the chorus has no lyrics and is uniquely composed of just the melody, it's a song in which the portrayal of the performance is that much more important. It's a performance where everything from the members' gazes to Lee Minwoo's solo dance and even the ending has meaning. Each of the music show cameras have interpreted Shinhwa's performance in their own way. Borrowing from the words of Choreographer Choi Youngjun (of Liveworks Company), who spearheaded the "Touch" performances, I analyzed the comeback stages on the music shows.

Watching Point 1: Shin Hyesung's Intro

Choreographer Choi Youngjun explained, "If you watch the intro during Shin Hyesung's part, all the members are looking in different directions. The members then fix their gazes in another direction. I think it's a really important part. It's a part that was made to maximize Shin Hyesung's aura and vocal color."

신혜성의 나지막한 보컬로 시작하는 '터치'는 여섯 명이 일렬횡대로 조금씩 엇갈려 선다.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노래의 박자에 맞춰 천천히 시선을 돌린다. 이후 민우의 파트가 시작되면 모두가 정면을 바라보고 군무에 돌입한다. 신혜성의 인트로에서 여섯 사람의 엇갈리는 시선을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KBS 2TV '뮤직뱅크'가 클로즈업과 풀샷을 오고가며 신화의 시선처리 변화를 담아내는 데 성공했다. 나머지 방송은 신혜성의 비주얼에 집착하거나(클로즈업) 시선을 돌리는 부분을 풀샷으로 잡지 않고, 정적일 때를 포착해 퍼포먼스 효과를 살리지 못했다.

관전포인트 2. 김동완과 앤디의 '무심'(無心)

최영준 안무가 "개인적으로는 김동완, 앤디 파트가 참 맘에 들어요. 두 분은 이번 노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번 안무 색깔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심'인데 두 분이 그 포지션을 맡았어요. 김동완의 파트는 이번 무대에서 카메라를 잘 보질 않아요. 그건 계획된 설정이에요. 본인도 연구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무심해야 하지만 성의 없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죠. 앤디 파트에 뒷모습 상태로 랩을 마무리하는 부분 역시 무심함을 더하기 위해 설정한 안무예요. 두 분 모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실제 무대를 보면 정말로 김동완은 카메라를 잘 쳐다보지 않는다. 아이돌에겐 음악방송 무대에 서면 자신을 찍고 있는 카메라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 필수 요소지만, 김동완은 퍼포먼스 설정에 맞게 다른 곳을 바라본다. "성의 없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안무가의 설명처럼 김동완은 대표적인 연기돌답게 무대 위에서도 연기를 잘한다. 앤디도 마찬가지.

When "Touch" starts with Shin Hyesung's soft vocal, the six members are standing in a line, slightly staggered. They each are looking in a different direction and then matching to the song's beat, they slowly change their gaze. Afterwards when Lee Minwoo's part starts, they all look to the front and start their group dance.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e six member's staggered gazes during Shin Hyesung's intro when shooting this.

KBS 2TV's "Music Bank" succeeded in portraying Shinhwa's shifts in gazes by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closeups and full shots. In the other shows, they either obsessed over Shin Hyesung's visuals (through closeups) or did not show their shifts in gazes as a full shot and only shot them when they were static, and thus were not able to portray the full effect of the performance.

Watching Point 2: Kim Dongwan and Andy's "Indifference"

Choreographer Choi Youngjun stated, "I personally really like Kim Dongwan's and Andy's parts. Their roles are very important. If I were to describe this choreography's color in one word, it would be "indifference" and they both are responsible for that position. During his parts on stage, Kim Dongwan doesn't really look at the camera. This is a planned set-up. He too studied his part a lot because even though he has to be indifferent, he can't look insincere. When Andy finishes his rap with his back turned, the choreography was set up to emphasize indifference. I think they both fit their parts well."

When watching the stages, Kim Dongwan really doesn't look at the camera a lot. For idols on a music show stage, it is a needed requisite to find the camera that is shooting them, but Kim Dongwan looks the other way to fit the performance set up. Just as the choreographer explained that "it's because he can't look insincere," Kim Dongwan acts well on the stage like the representative actor-dol [*an idol singer who also works as an actor*] that he is. Andy does as well.

다만, 음악방송 카메라워킹은 멤버들과 카메라의 눈맞춤과 얼굴을 담아내는 데 주력하기 때문에 컴백 방송 대부분이 이 같은 관전포인트를 포착하는 데에 실패했다. SBS '인기가요'는 카메라를 뒤쪽으로 이동해 앤디의 얼굴을 담으려 애쓰기도 했다. 대부분 방송이 앤디의 뒷모습과 옆선을 클로즈업했다. 댄서들과의 전체적인 구도를 잡아주는 음악 방송은 없었다.

관전포인트 3. 기승전디

최영준 안무가 “마지막 에릭과 앤디 두 분이 엔딩 무대를 장식한해요. 예전부터 래퍼들이 엔딩을 장식하는 걸 꼭 해보고 싶었어요. 리더 에릭이 센터에서 무게감을 더해주고 앤디가 마지막 중앙에서 마무리하면 신선함을 더할 것 같아 넣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신화 멤버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강조했다. '터치' 컴백 인터뷰에서 신혜성이 “안무도 보면 앤디가 센터에서 곡이 끝나는데, 저희가 '기승전디'라고 했다”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기도 했다. 마지막 부분에서 에릭이 센터에서 무게를 잡다가 앤디가 중앙으로 나오며 대형을 바꾸는 과정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승전디'를 제대로 살린 음악방송은 없었다. Mnet '엠카운트다운'은 이민우 독무부터 조명을 끄고 실루엣을 강조했지만, 대신 에릭과 앤디의 동선 이동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 MBC '쇼!음악중심'은 스모그와 푸른 조명, 넓은 풀샷이 임팩트를 약화시켰다. '뮤직뱅크'는 센터 앤디 존재감을 살렸지만, 시종일관 빨간 조명이 아쉬웠다. SBS '인기가요'는 앤디가 센터로 진입하는 과정을 잡진 못했지만, 엔딩 포즈를 길게 잡으면서 '기승전디'를 살린 방송이었다.

However, since the camera work of music shows focuses on making eye contact with the members and capturing their faces, the comeback broadcasts failed to catch this watching point. SBS's "Inkigayo" went as far as moving the camera backwards to show Andy's face. Most shows did a closeup of Andy's back and side profile. There was no music show that caught the overall formation with the dancers.

#Watching Point 3: Unexpected-Dy

Choreographer Choi Youngjun said, “Eric and Andy are the grand finale of the ending stage. From long before, I wanted to use the rappers as the grand finale. I thought that Leader Eric at the center would give more weight and that if it ended with Andy in the middle, it would give more of a freshness to it. I personally really like this part.”

Shinhwa members also emphasized this part. At a comeback interview for “Touch,” Shin Hyseung gave a behind the scenes account: “If you watch the choreography, the song ends with Andy at the center, so we called him “Unexpected-Dy.” In the end, it is important to catch the formation change when Eric holds the weight in the center and then Andy comes out in the middle. However, no music show was able to save “Unexpected-Dy.” While Mnet’s “MCountdown” turned off the lights from Lee Minwoo’s solo dance to emphasize the silhouette, it did not properly catch Eric and Andy’s movement shifts. MBC’s “Show! Music Core” weakened the impact with its smog, blue lighting, and wide full shot. While SBS’s “Inkigayo” did not catch when Andy entered the center, they’re the show that saved “Unexpected-Dy” by showing the ending pose longer.